

저소득 실직가정의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김 혜 경*

1960년대 이래 우리 나라는 선성장·후분배의 경제발전 논리와 권위주의 정치체계의 불평등한 자원배분의 기저 위에서 양적 성장위주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결과, 외형상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질서는 왜곡되어 결국 1997년 'IMF 관리체제' 하에 총체적인 구조조정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고금리와 긴축을 골자로 한 IMF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은 대량실업과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중산층이 줄어들고 서민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으로 도시빈곤층을 양산하고, 우리 국민들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경제·사회적 혼란을 경험하였다(대통령비서실, 2000).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만성적 빈곤이나 혹은 실직으로 인한 급격한 가정경제의 악화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결핍상황이 개인 및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관한 연구들이 여느 때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연구들은 위와 같은 만성적, 혹은 일시적이고 급격한 가족의 경제적인 결핍 환경이 가족원간의 심리적 갈등과 위기, 가족해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스트레스(stressor)라는 데 일치하고 있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결핍은 한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부들에게 가족자원의 실질적인 분배로 인한 갈등과 새로운 대체자원의 획득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킴으로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가족원의 총체적인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의 요인이 된다.

* 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실업 및 빈곤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스트레스 모형을 적용한 일련의 연구들은 동일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가족, 친구 혹은 지역사회를 통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가족원들의 긍정적 적응과 회복의 기회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즉 적절한 심리 사회적 지지는 개인 및 가족원의 심리적 자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주요한 대처행동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에 비하여 이러한 가정의 가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인 심리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결핍상황에 처한 실직 및 빈곤가정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혜자인 가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과 전달방법을 통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심리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이론과 사례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 실직 및 만성적 빈곤가정의 가족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가정의 경제적 악화가 가족원 개인뿐 아니라 부부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들 가정에 대한 심리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과 역할을 사회 스트레스 이론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2) 1998년 12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200쌍의 실직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실직가정 기능강화 프로그램의 내용의 소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자들의 평가와 참가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피드백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을 토대로 저소득 실직가정 및 빈곤가정의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가정경제의 악화가 가족원에 미치는 영향

거시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한 대량 실업과 가계 소득의 급격한 감소가 가족 구성원과 부부관계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현상들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스트레스 유발 요인(stressor)을 삶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원의 상실이라고 규정할 때(Liem & Liem, 1979), 가정의 재정적 손실 및 실직자 자신의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실직은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이와 더불어 단순한 소득의 감소가 가족 구성원들에 주는 영

향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득의 감소가 장기화되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지출을 어렵게 할 정도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그 영향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가정 경제의 형편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가계 재정과 관련된 우려의 증대, 가정 경제의 악화로 인해 취해야 하는 조정(adjustments)의 심화, 그리고 미래의 가계 상태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의 경제적 부담감(economic pressure)의 증대도 실업과 더불어 주요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볼 수 있다(Voydanoff, 1991).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한 개인들이 겪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실직이나 가계 소득의 감소는 개인의 심리 상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준섭·이영분, 1999; 장혜경·김영란, 1999; Silbereisen, Walper & Albrecht, 1990; Warr, Jackson & Banks, 1988). Kessler, House & Turner의 연구(1987)에 따르면, 실직을 당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과 우울증적 증세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직을 당한 경우나 심각한 가계 소득의 감소를 겪은 가장들은 편집증적 증상과 적대감 등의 심리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현상은 실직을 당한 직후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Liem & Liem, 1988). 게다가 가정 경제의 위기를 겪는 가장들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매우 비관적으로 되며(Galambos & Silbereisen, 1989), 악화된 가계 수지를 맞추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희생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더 큰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Elder et al., 1992).

실업이나 심각한 소득 감소를 경험한 가장들이 이러한 상황을 중대한 위기를 가져오는 상황으로 정의하거나,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비하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주는 영향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Horowitz, 1984). 또한 가정 내의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가장의 시각이 전통적이고 경직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의 역할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는 악영향이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omarovsky, 1971). 즉 가장의 실직은 가정의 생계 유지를 위해 아내가 노동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남편과 아내의 가정 내의 역할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만일 남편이 갖고 있는 자신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태도가 매우 전통적이거나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역할 변화의 요구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융통성 있는 시각을 지닌 가장들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가장들에게 있어서 실업이 가져오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

가장의 실업이나 가계 소득의 심각한 감소가 가져오는 영향은 가장 뿐만 아니라 그 아내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em & Liem(1988)은 실직을 당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직자들의 아내들도 불안이나 적대감, 혹은 우울증적 증상을 겪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현상은 가장이 실직을 당한 후, 약 4 - 5 개월이 지나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Liem & Liem(1988)은 실직의 영향이 가장들의 감정 상태에 주는 영향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Conger & Elder(1994)는 미국 Iowa의 농촌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득 감소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이 아내의 우울증적 증상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의 증대는 남편에 대한 적대감을 촉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나 가게 소득의 감소가 가장과 그 아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함께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 또한 그 악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업 등으로 인한 가게 소득의 심각한 감소는 부족한 재원으로 가게를 꾸려나가기 위해 지출의 우선 순위의 결정이나 지출 범위의 감소 등 예전과는 다른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부부간에 상호 비판이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협조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좁게 만든다. 게다가 경제적인 부담감이 부부 각자에게 주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부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또한 악화된 부부 관계는 그 자체로써 당사자들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므로, 이로 인해 더욱 갈등이 심화되는 악순환의 관계에까지 놓이게 될 수도 있다 (McLoyd, 1990).

게다가 가정 경제의 악화가 가장의 실직이나 소득 감소에서 비롯되어 줄어든 소득으로 가게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내가 줄어든 소득을 매우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직업을 가져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며, 그와 동시에 가정 내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아내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부부 관계에서의 갈등의 심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Elder, 1974). 실제로 Silbereisen, Walper & Albrecht의 연구(1990)에 따르면, 소득 감소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아내의 의사 결정권이 증대되고, 부부간의 갈등 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이나 가게 소득의 감소를 가장의 실패로 여기는 경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Elder and Caspi, 1988). 한편, Conger와 그의 동료들은 가정 경제의 악화가 부부 관계에 주는 영향은 부부의 심리 상태를 통해 매개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정 경제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은 남편과 아내 모두로 하여금 우울증적 증상과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심리 상태가 부부 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었다(Conger and Elder, 1994).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실업을 비롯한 가게 소득의 급격한 감소 등의 스트레스 요인들은 부부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부부 관계의 악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 가장과 그 배우자는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협조적이거나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상호 비판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인 태도 및 행위를 나타냄으로써 부부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직 등의 경제적인 난관은 부부의 심리 상태를 매개로 하여 부부간의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2. 사회적 스트레스이론과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사회적 스트레스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형태나 정도의 악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완충 기재(buffering mechanism)에 따라 실업 등이 가져오는 영향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실직이나 가계소득의 감소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중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지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를 맺는 타인이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지지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신준섭·이영분, 1999).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재화나 서비스를 포함하는 도구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그리고 정보적 지지(informational support)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근원(sources)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자조 집단, 사회사업 전문가(human service professionals) 등을 들고 있다.

스트레스 이론에서 사회적 지지가 수행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다(Milne, 1999). 첫 번째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의 심리상태에 직접적인 영향(main effect)을 준다는 것이다. 즉,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나 친척, 혹은 친구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는 실직자들은 그렇지 않은 실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과 빈도의 정서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요인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중재 혹은 완충하는 역할(moderating effect)을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실직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안녕감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실직이나 소득의 급격한 감소 등의 스트레스 요인이 개인의 심리 상태에 주는 영향의 정도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된다. Kessler, Turner and House의 연구(1988)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실업으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상태에 있는 기간동안 배우자나 친구 혹은 친척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실직으로 인한 악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가져오는 중재 효과는 실직자들의 육체적인 반응보다는 심리적인 반

응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Liem & Liem 198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사회적 지지가 갖는 긍정적인 역할이 실직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실직자들의 재적응을 위한 개입(intervention)의 측면에서 볼 때, 실직자를 위한 적절한 사회적 지지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실직 등의 부정적인 인생 사건(life event)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실직자들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실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가의 여부, 즉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자 측면에서의 접근성과, 둘째, 제공된 사회적 지지가 수혜자들에게 실제로 수용 혹은 인지되는지의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제공된 사회적 지지가 이를 수용하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첫 번째 요인과 관련하여, 실직을 당한 당사자의 어려움에 대해 주변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부 관련 연구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제공되는 비공식적 지지가 사회사업 전문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지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Voydanoff, 1991). 실제로 신준섭·이영분(1999)은 실직자들의 사회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지가 친구나 타인이 제공하는 지지보다 실직자들의 자아 존중감에 더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가족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 점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만한 가족관계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실직이 주는 영향이 단순히 실직자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근원으로서의 가족의 역할에 심각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장의 실직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실직 당사자의 심리적 안녕감 뿐 아니라 아내의 심리 상태에 이르고 있고, 부부간의 관계마저도 실직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그 빈도나 효과 면에서 심각하게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남자의 경우 타인이 제공하는 사회적지지 보다는 아내로부터의 지지를 주로 수용한다는 연구 결과(Voydanoff, 1991)는 실직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개입 프로그램의 대상은 실직 당사자 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실직이라는 사건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직 당사자와 그 배우자 모두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의 제공해 줌으로써 부부 각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서로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의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제공하는 지지의 내용의 적합성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편이지만, 물질적 지지나 정보적 지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직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 지지는 금전이나 서비스와 같은 도구적 지지를 비롯하여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봉착하는 문제는 실직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보다는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에서 실직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금전적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최소한도의 금전적 보조는 실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지가 될 것이며, 이는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다른 형태의 지지의 효과를 높여 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직자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구직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나 재교육 과정이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환경의 악화가 가족원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구직과 관련된 정보나 재교육 뿐 아니라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실천 기술에 관한 정보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준다. 왜냐하면 실직의 영향은 부부 당사자들 뿐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더라도 그 효과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직자를 위한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은 재취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재교육 외에도 부부간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II. 실직 및 빈곤가정을 위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는 실직 및 빈곤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우리가 남인가’ 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실직 및 빈곤가정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적 지지프로그램 개

받을 위한 실증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대한 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재단 산하 5개 복지관에서 주관하였으며,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와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가 후원하여 '가족수당 지급'을 통한 가정 경제적 지원을 도모하는 한편, '부부사랑가꾸기', '세상읽기', '자조활동'을 통해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개의 지지축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첫째는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를 통하여 지급되는 가구당 월 15만원의 실직가정을 위한 '가족수당' 명목의 현금 서비스이며, 둘째는 실직 및 빈곤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심리 사회적 지지서비스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목적 및 교육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과 실시방법¹⁾

프로그램의 목적은 (1) 실직자들에게 가족수당 명목의 생계비를 직접 보조하며, (2)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취업 및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3) 실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개인 및 부부간의 긴장과 불안 및 갈등의 원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고 대인관계 기술 및 자아성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부부 및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며, 심리 사회적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프로그램은 IMF로 인하여 실직한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급여 프로그램을 지역 복지관을 통하여 분배함에 있어서 실직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 및 복지정보, 가족의 부부관계의 향상을 위한 관계향상 기술과 같은 정서적 지지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도구적 지지프로그램, 그리고 이들 실직가정들의 자발적 모임을 통한 정보교환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조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연결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특징은 수혜자인 실직가정의 부부가 복지관을 통해 실시되는 주 1회의 프로그램에 함께 참석하여 교육을 받도록 계약한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3달 동안 매달 15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함으로써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현금급여에서 탈피하였다는 데에 있다.

교육대상자의 신청 접수 및 선발은 해당 지역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홍보 후 각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신청자들을 면담하여 20가정으로 제한하여 선발하였다. 교육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남편의 연령은 26세에서 72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44세였으며, 아내의 연령은 최저 22세에서

1) 본 내용은 사례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평가회에서 이영호에 의하여 발표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공동진행자였던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음.

최고 71세로 평균 40세로 나타났으며, 35세에서 49세가 전체의 54.7%로 나타나 중년층의 참가비율이 높았다. 가장의 학력은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전체의 47.8% 이었다. 주택 소유형태는 전체의 56.6%가 전세, 20.1%가 월세, 12.6%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자가도 10.7%이었다. 가족형태는 82.7%가 핵가족이었으며, 동거자녀수는 전체의 47.8%가 2명, 20.5%가 1명, 3명 이상인 경우는 15.5% 이었으며, 평균실직기간은 14개월로 나타났다.

<표 1>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내용			시기		첫째달				둘째달				셋째달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우리가 남인가	어려울 때일수 룩소중 한우리 가족	부부/가 정생활 교육	현대 사회와 가정 생활		부부의 성역할 공유		풍요 로운 결혼 생활		만족 스러운 결혼		원활한 의사 소통		인적 자원의 활용			
		복지 및 법률정 보교육		IMF 와 실직				복지 정보 제공				법률 상담				
	자조모임활동				집단 활동					집단 활동				집단 활동		
	현물급여		15만원				15만원				15만원					

프로그램은 2차에 걸쳐 각각 12주 동안 이루어졌으며, 총 204쌍의 부부가 5개의 복지관을 통하여 교육받았다²⁾. 프로그램의 진행순서와 내용은 <표 1>과 같다.

2) 프로그램에 관한 수혜자의 평가³⁾

(1) 프로그램 평가의 대상 및 방법

2) 1차 프로그램은 1998년 12월 - 1999년 3월에, 2차 프로그램은 1999년 4월 - 1999년 6월에 이루어졌다. 교육 장소는 서울 시내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의 5개 복지관(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자양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였으며, 부부관계기능향상을 위한 교육은 한국가정생활진흥회의 연구원 6인과 외부 전문강사 1인으로 구성된 강의 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자조프로그램은 지역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3) 본 내용은 사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회에서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이미선 박미금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임.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1·2차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마지막 교육이 끝난 후에 질문지를 통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를 통해 교육대상들에게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된 계기, 참석할 때의 생각, 참석이후의 생각을 예시된 내용 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내용 중 좋았던 점과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자유 기술하게 하였다.

한편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차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실시 전과 후에 지영숙·이영호의 가정건전도(1998) 척도⁴⁾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고 t-test를 통하여 차이를 검증하였다.

복지관별 평가 대상자는 총 2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교육대상자들의 변동이 심하여 마지막까지 수업에 참석한 부부는 각 복지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2차 실시에는 취업률이 증가하여 남편들의 참석률이 저조하였다. 전체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한 질문지 중 회수된 질문지는 총 246부이며, 자유기술식의 질문에 응답한 수는 상당히 적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가계소득은 553,284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43.9세이며, 평균 가족수는 4.1명, 자녀수는 1.9명, 첫 자녀와 막내자녀의 평균 연령은 15.9세와 12.9세로 나타났다. 실직하기 전의 직업상황을 보면 남성들의 경우 단순기능직(35.4%) > 자영(25%) > 전문·관리직(13.5%) > 사무직(11.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직도 8.3%나 되었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 전업주부(46.8%) > 단순기능직(26.6%) > 자영(11.9%) > 전문·관리직(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직하기 전의 근무형태를 보면 남성들의 17.2%, 여성들의 43.6% 는 시간제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2)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분석

자기보고식 질문지 가운데 개방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된 계기

순 위	참 석 계 기	빈도(명)
1	이웃이나 친지가 알려주어서	87
2	복지관, 구청, 동회 등에서 보낸 홍보자료를 보고	63
3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참석을 권하여서	58

4) 가정건전도 척도는 일상생활,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가정경제, 공공질서, 친족관계등의 6개 하위영역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3> 프로그램 참석할 때의 생각

순 위	참 석 이 유	빈도(명)
1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95
2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78
3	시간적으로 부담이 없어서	95

<표 4> 프로그램 참석이후의 생각

순 위	참 석 후의 생각	빈도(명)
1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177
2	부부 또는 부모자녀 등의 가족관계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157
3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155

본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실직 가정의 부부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제적 도움이 가장 주요한 도움이라고 하였음은 실제적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여기서 특기할 것은 이들은 참석할 때에는 프로그램의 참석으로 인하여 가족관계 향상을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응답자들이 부부 혹은 부모자녀 등의 가족관계의 향상을 보고하였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본 프로그램에서 의도하였던 심리사회적 지지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의 내용 중 가장 좋았던 것을 지적한 응답은 남녀의 차이가 있었다. 남성들은 구직정보, 법률상담 등과 같이 실업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호한 반면, 여성들은 구직정보와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강의내용에 대하여 비슷한 정도의 선호도를 보였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척도에서 남성 7.18, 여성 7.54로 나타나 전체 평균 7.37의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참석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이와 같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에 대한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면접 가정들의 대다수는 IMF로 인한 실직 이전에도 도시의 만성적 빈곤계층에 속한 가정들이 많았으며, 이들 가정은 대체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서 불신과 의사소통의 부재, 부적절한 관계표현에 의한 갈등 등의 만성적 악순환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권유에 혹은 남편이 자발적으로 본 프로그램의 취지를 알고 등록한 부부들의 경우에 이들 부부는 본 프로그램의 부부관계 향상에 관한 강의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이고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참석자들은(특히 남성들은) 프로그램이 실시된 초기에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생소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자괴감 등이 겹

처서 매우 어색하고 불편함을 표현하였으나, 대다수가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적극적이고 우호적으로 변화하여 모임이 기다려진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공공부조의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함으로 수혜자들의 정신교육과 정서적 순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공부조의 실질적 혜택을 부여함으로 만족도를 더욱 고양시켰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실시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 것들은 첫째,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식의 강의 및 내용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둘째,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의 정보제공을 원하였으며, 셋째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편의 시설에 대한 개선과 지속적인 만남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로 미루어보아 참석자들은 본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의 심리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주관적인 응답은 사전·사후 검사의 분석결과에 의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되고 있다. <표 6>에서 보면, 응답자들의 가정건전도에 관한 평균점수가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에 더

<표 6> 가정건전도 사전·사후비교 (5점 만점)

가정건전도		시기	평균	t값
하	일상생활	사전	3.82	-41
		사후	3.88	
위	부모자녀관계	사전	4.15	-1.04
		사후	4.27	
영	부부관계	사전	4.02	-2.08*
		사후	4.42	
역	가정경제	사전	3.67	-1.14
		사후	3.90	
전	공공질서	사전	4.43	-1.54
		사후	4.72	
체	친족관계	사전	4.04	-1.70
		사후	4.38	
전 체		사전	3.99	-1.50
		사후	4.17	

* p < .01 사전검사(62명), 사후검사(56명)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부관계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본 프로그램이 주로 의도하였던 부부관계의 향상이라는 교육목적이 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IMF 금융관리체제 하에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으로 사회적 관심의 중심으로 떠오른 실직자 및 실직 가정, 이와 더불어 만성적 빈곤가정에 대하여 사회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사회적 지지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 및 가족원의 심리 사회적 자원을 증대시키고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여 재적응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과 가족 혹은 집단에게 있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적절성 여부는 그 프로그램의 수혜자측면의 욕구와 공급자 측면의 욕구 및 상황이 적절히 절충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우선적으로 수혜자의 욕구가 얼마나 수렴되었는지, 또한 그들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들이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실제로 심리 사회적 복지감의 증진을 경험하였는가하는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남인가'와 같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시방법에 있어서 정부주도의 공공부조적인 현물급여와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갖는 민간 복지 차원의 복지 서비스를 적절히 접목하여 다양한 욕구를 갖는 대상자들에게 수혜자 중심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주도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사회적 급여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주체의 다양성으로 민간의 전문 인력자원과 복지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그리고 수혜자 모두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주체자로서 협력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자의 관심과 참여도 증진을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수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형편을 고려하여 지역의 복지전문가의 상담과 평가를 통하여 선별함으로써 지역중심의 관리를 통한 자조모임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소득 실직 및 만성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단순한 현물급여나 사회적 지지가 분리되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현물급여와 접목된 사회적지지 제공 프로그램은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가족 관계의 향상을 통해 실직 혹은 만성적 빈곤이라는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족자원 형성에 기여한다.

참 고 문 헌

- 대통령비서실. 2000.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퇴설당.
- 신준섭 · 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37호. pp.241-270.
- 장혜경 · 김영란. 1999.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지영숙 · 이영호. 1998. 한국가정의 건전도 측정을 위한 척도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6권. pp. 233-250.
- Conger, Rand D., and Glen H. Elder, Jr. 1994. *Families in Troubled Times: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Aldine De Gruyter: New York.
- Elder, Glen H., Jr. 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lder, Glen H., Jr., and Avshalom Caspi.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44(4):25-45
- Elder, Glen H., Jr., Rand D. Conger, E. Michael Foster, and Monika Ardel. 1992. "Families under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Family Issues* 13(1):5-37
- Galambos, Nancy L., and Rainer K. Silbereisen. 1989. "Income Change, Parental Life Outlook, and Adolescent Expectations for Job Succ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141-149
- Gore, Susan. 1978.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in Moderating the Health Consequences of Un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 Horowitz, Alolan V. 1984. "The Economy and Social Path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0:95-119
- Kessler, Ronald D., James S. House, and J. Blake Turner. 1987. "Unemployment and Health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51-59
- Kessler, Ronald C., J. Blake Turner, and James S. House. 1988.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in a Community Survey: Main, Modifying, and Mediating Effects."

- Journal of Social Issues* 44(4):69-85.
- Komarovsky, Mirra. 1971. *The Unemployed Men and His Family: The Effect of Unemployment upon the Status of the Man in Fifty-Nine Families*. Octagon Books: New York.
- Liem, G. Ramsay and Joan Huser Liem. 1988.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on Work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87-105.
- McLoyd, Vonnie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311-346
- Milne, Derek L. 1999. *Social Therapy: A Guide to Social Support Interventions for Mental Health Practitioners*. John Wiley & Sons: West Sussex, England
- Silbereisen, Rainer K., Sabine Walper, and Helfried T. Albrecht. 1990 "Family Income Loss and Economic Hardship: Antecedents of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Pp. 27-47 in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Economic Stress: Effects on Family Life and Child Development*, edited by Vonnie C. McLoyd and Constance A. Flanagan. Jones-Bass Inc. Publishers.
- Voydanoff, Patricia. 1991.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Pp.429-445 in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edited by Alan Booth.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Minneapolis.
- Warr, Peter, Paul Jackson, and Michael Banks. 1988.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Some British Stud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47-68